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69)(5/21/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4 장 외적인 일들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음, 1-2 절

롬 12:3 -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 <그리스도> 아들이,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좋은 일들이 많다. 너는 네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은 자이고, 온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너는 많은 것들을 못 들은 체 흘려 버리고, 너의 평화와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여야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에는, 논쟁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편이 네게 더 유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판단이 너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땅에서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2. <제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 못 견뎌하고, 아주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반면에, 영적으로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는 거의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전혀 또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에는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넘겨 버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외적인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히 제정신을 차리고서,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적인 것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성령님과 교통하는 영성의 삶의 핵심 중의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며, 그것을 위해 애굽과 노아와 같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는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 사람, 그리고 여러가지 일들 보다 먼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한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떤 상황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삶의 거처를 이동하면서 가는 곳곳에서 예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창 12:7-8).

기도는 골방에서도 드려야 하지만, 일터에서, 걸어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멈출 수 없다. 시편 102 편에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시 102:1-2 -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것들 중에 특히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집중을 방해한다.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유혹을 당하기 쉽고, 편안해진 육신은 더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기 쉬우며, 영적으로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히 할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한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 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고 평가된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고, 무역이 활성화되어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한다.

왕하 14:26-27 -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던다. 문제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로보암 2 세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심각한 죄와 타락 속에 있었다. 왕하 14:24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부유함 속에서 더욱 타락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에서든 형통에서든 만일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 주저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나치게 번잡해지는 것을 극복하고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롬 12:3 -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불필요한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번잡한 생각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며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 때 우리의 내면에는 평안이 깃든다. 주 안에서 가지는 바른 생각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롬 8:6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다양한 일에 관여하고 신경을 써야 하지만, 때로는 성령 안에서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묵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식사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눅 10:42)고 하셨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절제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때때로 내 생각과 주장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될 때, 우리는 조바심을 느끼고 답답해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한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답답한 일들과 흔들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겨 보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의 관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잠시 나의 것을 내려 놓아 보자. 그리고 나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더 모시도록 기도하자.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요동칠 때, 고요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스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과 만족감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남아공화국 김영무, 탄자니아 박재덕, 에티오피아 박종국, 이기형, 가나 양광균, 케냐 최인호)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펜데믹 상황을 비롯해서 전쟁, 기근, 자연재해, 환경 파괴 등으로 고통 당하는 세계 곳곳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